“미대사관, 한국 정부에 대북정책 불만 표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미정부, 정책결정 배제 인식”
일단 ‘평창 화해’ 유지 노력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북한의 깜짝 제안과 여기에 대한 한국의 개방적인 태도가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런 제안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이 어떻게 화답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미국 정부와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WSJ는 “한국이 북한에 접근하면서 미국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이 ‘어떠한 선제 대북 군사행동도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요구와 맞물려 미국의 관료들을 특히 실망시켰다”고 전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교관들이 한국 정부의 카운터파트에 그들이 느낀 불만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동계올림픽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응해 신속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미 대사관에 설명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에서 남북대화와 그 성과를 언급하지 않고 강경한 대북제재만을 강조한 것 역시 양국 간 견해차가 공개적으로 노출된 사례라고 WSJ는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서도 백악관은 그의 호전적인 발언에 충격을 받은 반면, 청와대는 북한의 틀에 박힌 호전적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신 올림픽 참가 시사에 고무되는 등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WSJ는 보도했다.

물론 적전 분열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한미 공조를 다지는 노력도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 재개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달 중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지속적인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이간질 시도에 맞서 단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미국이 공격형 잠수함인 USS 텍사스의 2월 한국 입항 계획을 취소하고 한국 선수들의 마식령 스키장 훈련을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한 남북 화해무드를 깨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탈북자들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과의 직전 통화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과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 북한 인권을 발표문에 포함하지 않은 청와대와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미 외교 문제에 정통한 한 관료는 WSJ에 “오늘날 우리(한미)는 좋은 관계”라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많은 정책적 시험대가 있다. 도전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 열차 충돌, 최소 2명 사망 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케이스에서 암트랙(전미여객철도공사) 열차와 화물운송업체 CSX의 화물열차가 충돌, 암트랙 열차 차장 등 최소 2명이 숨지고 1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암트랙 열차가 선로를 잘못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 현장의 항공사진으로 왼쪽이 화물열차, 오른쪽이 탈선한 암트랙 열차. /연합뉴스

중 언론 “김영남 방한, 국제 관계 개선 의지”

김영남〈사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하자 중국 관영 언론과 관변 학자들이 일제히 주목했다. 이들은 북한이 대북 압박 속에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해보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5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등 주요 매체들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확인했다면서 김 상임위원장은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다음 서열로, 명목상 국가 수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김 상임위원장이 방한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지역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현재 국제 압박을 받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관계를 완화해보려는 기대가 있어 이런 중요한 지도급 인사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왕 부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만 두문불출해 해외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지도급 인사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방한은 북한의 국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김 상임위원장의 방한으로 한반도 문제가 어느 영역까지 (논의가) 추진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관측이) 매우 어렵다”면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일정 부분 양보하지 않으면 김영남 위원장은 커녕 누가 오든 간에 북한의 최종 목표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독도 들어간 한반도기
일본 관방장관 ‘딴지’

지난 4일 인천 선학국제빙상장에서 열린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평가전에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가 게양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수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대사관측에,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평창올림픽위원회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18 강직한 신하 유인궤

유인궤(劉仁軌, 601-685)의 자는 정직으로 변주 울지 출신이다. 당 태종, 고종 때의 명신이다. 강직한 성품으로 조야의 존경을 받았다.

관직에 나가 하급관리직을 수행했다. 정관 14년(640) 진창현위로 있던 중 진창의 절충도위 노녕이 죄에 연류되었는데 그를 모독하자 몽둥이로 때려죽였다. 태종은 격노해 장안으로 소환해 그에게 힐문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노녕이 백성들 앞에서 신을 능욕하였기에 분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황제 옆에 있던 간관 위징이 황제에게 “수나라가 망한 까닭을 아십니까?”라고 말하였다. “수 말기에 백성들이 강해 관리들을 능욕하였는데, 노녕 같은 사람을 여기에 비할 수 있습니다.” 태종이 발탁해 역양현승으로 삼았다.

이후 순조롭게 승진해 급사중이 되었는데 간신 이의부의 모함을 받아 청주자사로 쫓겨났다. 고종 원삭 원년(661) 백제와 싸우는 당군의 해상 운송을 감독했는데 배가 전복되어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하였다. 백제 의자왕의 아들 풍이 주류성에서 농성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유인궤를 대방주자사로 삼아 백제군에 포위된 장군 유인원을 구하도록 하였다. 그는 “하늘이 꼭 이 늙은이를 부귀하게 하겠구나”라며 “내가 동이(東夷)를 평정하고 당의 제도를 반포할 것이오”라고 말했다. 군대를 엄중히 통제해 싸우는 곳마다 모두 승리해 백제의 부흥노력을 저지했다. 백제의 명장 흑치상지의 항복도 받아들였다.

660년 우상으로 승진했다. 668년에는 요동도부총관이 되어 고구려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아들간 갈등으로 평양성이 함락되고 당에 투항했다. 670년 태자좌서자 673년 동중서문하삼품이 되었다. 같은 해 허경종이 주도한 역사 편찬이 부실하자 재편찬토록 명을 받았다. 674년 신라가 당의 통치에 반발하자 계림도대총관이 되어 이필과 이근창을 부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발동해 신라 토벌에 나섰다.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대파하였다. 결국 신라왕 김법민은 공물을 바치고 사죄했다. 675년에는 상서좌복야 겸 동중서문하삼품을 겸해 황제를 보좌했다. 677년 토번이 국경을 어지럽혔다. 청해성 낙도현에 군대를 주둔시켜 방어하고 본격적인 토벌 작전에 나섰다. 681년 태자소부를 겸하였다. 소부감 배비서가 황실에 있는 말의 분뇨를 팔면 2백만 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청했다. 고종이 그에게 하문하자 “이익은 두텁습니다만 아마도 후대에 당 황실에서 말의 분뇨를 팔았다고 불리게 되면 명성에 누가 될까 걱정입니다.”고 답해 계획을 중지시켰다. 눈앞의 이익보다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일화다.

682년 장안에 기근이 들자 고종을 모시고 동도인 낙양으로 옮겨 큰 화를 면하였다. 683년 고종이 붕어하자 중종이 즉위했다. 다시 좌복야로 발탁되어 중서령 배염, 시중 유경신과 함께 새 황제를 보좌했다. 684년 중종의 위황후가 친정아버지 위현정을 시중으로 삼으려 하는 등 권력을 휘둘렸다. 측천황후는 재상 배염 등과 공모해 중종을 폐위시켰다. 여릉왕으로 강등되 15년간 유폐생활을 하게 되고 위현정은 흠주로 귀양조치 되었다.

측천은 그에게 편지를 주어 말하기를 “옛날에 한나라는 관중의 일을 재상 소하에게 맡겼는데 지금 공에게 맡긴 것 역시 이와 같소.” 그는 나이 들어 일을 감당키 어렵다며 사임을 주청했다. 황후는 “공의 충성스럽고 곧은 절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굳세고 정직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교할 것이 드뭅니다. 공은 이전의 조정에서 오랫동안 덕망을 쌓아서 먼곳과 가까운 곳을 모두 굽어볼 수 있으니, 바라건대, 바로잡고 구원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연로하다고 사직하겠다는 청원은 하지 않도록 하시오”라며 사직을 극력 만류하였다.

재상 배염의 역모 사건이 일어나자 엄정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강사종의 공모 사실을 보고해 처벌토록 했다. 685년 정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세로 현종 때 문헌공으로 추증되었다. 저서로 ‘유씨행년기’가 남아있다. 태종과 고종 때의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횡액을 면한 명예로운 삶이었다.

백제·고구려·신라 침공군 통솔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장기투자 최적**
- 매매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음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